

TV 2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⑥	40 콧노랑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⑦		50 인간극장		10 광주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이브의 사랑〉	30 KBC 모닝와이드
⑧	00 아침경제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아침	25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어머님의 내며느리〉
⑨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그래도 푸르른 날에〉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⑩	20 시사 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별별가족	40 지구촌 뉴스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⑪	40 채널A 뉴스토보	00 KBS 네트워크 특선 춘추춘 55 바른말 고요말	00 월화드라마 〈너를 기억해〉(재)	00 그린실버 고향이 좋다	10 KBC 생활뉴스 30 세계문화탐방 지구촌 축제
⑫		00 KBS 뉴스 12		10 MBC 청오 뉴스 2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재)	00 SBS12뉴스 50 닥터 365
①	50 뉴스특급	00 대조영(재) 55 시청자 칼럼 우리사는세상	00 1대 100(재)	10 꾸러기 식사고실 40 똑똑 키즈스쿨 스페셜	00 KBC 열린토론회(재)
②		00 TV야고라(재) 50 콘서트 필(재)	00 KBS 뉴스타임 10 인간극장 스페셜(재) 50 생생정보 스페셜	30 어린이 직업탐험대 드림키즈 스페셜	0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③	00 직언직설	30 영상앨범 산(재) 55 튜튼생활제조	45 후토스	00 MBC 뉴스 10 타스의 풀이풀이 시사성어 40 문화 사색	00 SBS 뉴스 10 잘 먹고 잘 사는 법 식사하셨어요(재)
④	2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역사저널 그날(재)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40 TV유치원 콩다콩	25 MBC 일일특별기획 〈딱 내 같은 딸〉	00 꾸러기 탐구생활 스페셜 30 내마음의 크레파스
⑤	4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10 검정고무신4 40 동물의 세계	00 MBC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꿈의 라이브 프리즘 스톤
⑥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 정보	10 생방송'빛날'	00 날씨와 생활 05 닥터365 10 KBC생방송 투데이
⑦	10 닥터 지 바고	00 KBS 뉴스7 30 우리말 겨루기	50 일일드라마 〈오늘부터 사랑해〉	15 일일연속극 〈위대한 조강지처〉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타지 따따따 20 일일드라마 〈돌아온 황금복〉
⑧	20 아내가 뿔났다(재)	25 가족을 지켜라	30 반려동물극장 〈단팍〉 55 위기탈출 넘버원	55 MBC 일일특별기획 〈딱 내 같은 딸〉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⑨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⑩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너를 기억해〉	00 월화 특별기획 〈화정〉	00 월화드라마 〈상류사회〉
⑪	00 이제 만나러 갑니다	00 KBS 뉴스라인 40 TV, 책을 보다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5 어부의 만찬	10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⑫	40 통일준비 생활백서 잘 살아보세(재)	20 1차 세계대전 어느 병사들의 이야기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15 MBC 뉴스24 35 메이저리그 다이아리 50 실맛나는 세상 스페셜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EBSe 생활 영어	09:35 이연 스페이스 정글	14:30 허풍선이 과학쇼	19: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05:30 건강환 아침	09:40 토크쇼 부모 - 고수다	14:45 미앤마이로봇	19:30 EBS뉴스
05:40 나의 성공비결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5:00 반짝반짝 발명 클럽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15 내 친구 아서	20:40 다큐 오늘
07:00 우당탕탕 아이쿠(재)	11:10 문화유산 코리아	15:30 시계마을 티키톱!	20:50 세계테마기행
07:15 곤(재)	11:20 세계테마기행	15:45 미술 탐험대	〈모스크바에서 우랄까지 2500km 대장정〉
07:30 출동! 슈퍼왕스(재)	12:00 EBS 정오 뉴스	16:00 당동영 유치원(재)	21:30 한국기행
0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12:10 EBS 스페이스 공감1(재)	16:30 놀이터 구조대, 보잉	〈나라신 계곡여행〉
08:00 덩동덩 유치원	13:05 지식채널e	16:45 골디와 친구들(재)	21:50 EBS 다크프라이미
08:20 두다디콩(재)	13:10 초등 1년 EBS 여름방학생활	17:00 Why - 최고다! 호기심딱지	〈결혼의 진화〉
08:35 Why - 최고다! 호기심딱지	13:30 초등 3년 EBS 여름방학생활	17:1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22:45 달라졌어요
08:50 골디와 친구들	13:50 초등 5년 EBS 여름방학생활	17:30 뽀롱뽀롱 뽀로로	23:35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
09:0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재)	14:00 몬스터 수학나라	17:45 꼬마버스 타요	〈칼의 역사〉
09:20 놀이터 구조대, 보잉(재)	14:15 피터 래빗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	

EBS플러스1		EBS플러스 2	
00:00 올림포스 <국어-알파개념>	13:05 " <고교 Basic Grammar-junior>	07:00 2015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15:40 초등 2년 EBS 여름방학생활
00:50 " <고교 Basic Grammar-junior>	14:00 2016 수능완성 <국어 B형>	07:30 경찰직 공무원 시험대비강좌	16:00 초등 3년 EBS 여름방학생활
01:40 " <문학-알파개념>	14:50 올림포스 <문학-알파개념>(재)	08:30 약학·의학·치학 입문자적시행	16:20 초등 4년 EBS 여름방학생활
02:30 " <미적분>	15:40 " <미적분>(재)	09:00 줄거운 수학 EBS MATH	16:40 초등 5년 EBS 여름방학생활
03:20 " <수학 1>	16:30 " <수학 1>(재)	09:10 중학단기특강	17:00 초등 6년 EBS 여름방학생활
04:10 올림포스 평가문제 <미적분>	17:20 " <평가문제 <미적분>(재)	09:50 <영어1 독해240제>	17:20 초등수학 개념잡기
05:00 뉴탐스런 <물리>	18:10 2016 N제 <국어 A>	10:30 " <수학1 280제>	18:00 중학단기특강
06:00 " <생명과학>	19:30 " <영어>	11:10 중학단기특강	18:40 " <영어3 독해240제>
06:50 " <동아시아사>	20:00 EBS 스타강사 특강	11:50 " <수학2 300제>	19:20 필독 중학 세계사
07:40 " <윤리와 사상>	20:50 인터넷 수능	13:10 중학인공	20:00 EBS 기획특강
08:30 2016 수능개념 <윤해정의 국어>	21:50 " <문학A형>(재)	13:50 " <수학1(1상)>	20:50 EBS 기획시리즈
09:20 " <심주석의 수학>	22:30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14:30 " <과학 1-1>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10:10 2016 수능완성 <영어A>	23:10 인터넷수능<영어독해연습-종합>	14:30 " <수학2(2상)>	22:00 중학인공 <과학2-1>
11:00 " <수학>		15:20 초등 1년 EBS 여름방학생활	22:40 " <수학 3(상)>
12:15 올림포스 <국어-알파개념>(재)	23:50 지식채널e		

知天命이 오는 오늘의 운세		7월 20일 (음 6월 5일 丁酉)	
子	48년생 어려움은 잠시일 뿐이니 용기를 잃지 말고 계속하라. 60년생 모순 구조의 핵심을 발견하게 되리라. 72년생 형국에 영향을 줄만한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리라. 84년생 의도적으로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 행운의 숫자 : 39, 34	午	42년생 정성에 비례한 결과가 도출 될 것이다. 54년생 매우 비슷하여 혼동 할 수도 있으니 앞뒤 분간을 잘 해야겠다. 66년생 번통할 여지가 없어 외딴에 놓여 있다. 78년생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점차 적응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59, 62
丑	49년생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감정을 엄격히 구분하자. 61년생 처리만 잘 한다면 김사와 연결되리라. 73년생 백 번의 구상보다 단 한 번의 실행이 더 많다. 85년생 적극적으로 행해야 성과가 클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2, 63	未	43년생 행운의 길목에 들어서고 있는 마당이다. 55년생 성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실요적이다. 67년생 꾸준히 실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79년생 목척에 부합한다면 문제시할 필요 없다. 행운의 숫자 : 08, 66
寅	38년생 중차대한 소임을 맡게 되는 대국에 이르렀다. 50년생 세밀히 따져봐야 한다. 62년생 개선할 수 있는 테크닉이 필요하다. 74년생 기다 말고 다시 되돌아 올 수도 있겠다. 86년생 술선수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행운의 숫자 : 12, 21	申	44년생 구관이 명관이라 했으니 새로 생기는 것보다 기존의 것이 훨씬 낫다. 56년생 마음이 없으면 행하지 않아야 후회하지 않는다. 68년생 현혹될 수도 있겠다. 80년생 형식의 유형에 따른 차이가 크다. 행운의 숫자 : 59, 63
卯	39년생 과정에 충실하다보면 완성도가 높아지겠다. 51년생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대단한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63년생 처음에는 어려우나 점점 쉬워질 것이다. 75년생 무난하리라. 87년생 실속이 있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04, 36	酉	45년생 입지가 넓어지고 활발해지는 운로이니라. 57년생 속명적으로 상대를 설득시켜야만 할 형편에 놓일 것이다. 69년생 진정한 자선이란 화생이 따르는 법이다. 81년생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 된다. 행운의 숫자 : 41, 29
辰	40년생 대비하는 이만이 손실을 최소화 하리라. 52년생 낙수물도 반복 되면 댃들을 뚫는 법이다. 64년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보전할 수 있느니라. 76년생 부주의 한다면 큰 일 날수도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4, 23	戌	46년생 차이를 인한 변화가 클 것이다. 58년생 기회는 왔으니 요건을 갖추는데 주력하자. 70년생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한 지열한 노력이 수반 되어야 한다. 82년생 방도와 해안을 찾아낼 수 있는 여건이 따른다. 행운의 숫자 : 65, 55
巳	41년생 참으로 의미 있는 기회가 기다리고 있으니 놓치지 않도록 하라. 53년생 중대사와 연결 될 소지가 있다고 본다. 65년생 사서 고생할 필요까지는 없다. 77년생 집요하게 파헤쳐야 드러나겠다. 행운의 숫자 : 32, 18	亥	47년생 그 무엇보다도 실익을 우선시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명심해야 하느니라. 59년생 조금만 더 나아간다면 안정권에 들어갈게 된다. 71년생 틀림없이 적중할 것이다. 83년생 초기의 호려이 유지되었다. 행운의 숫자 : 71, 76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			

“매력 넘친 ‘하와이 피스톨’ 목직하고 감동적이었죠”

개봉 앞둔 영화‘암살’ 하정우

독립을 향한 열정을 불사르는 항일 운동가들 틈에서 유유히 제 갈 길을 가는 상하이의 무법자 ‘하와이 피스톨’. 이 역할에 하정우(사진)가 아닌 다른 배우를 떠올릴 수 있을까. 하정우 자신이 “‘하와이 피스톨’이란 이름이 멋져서 출연을 결심했다”고 말한 것도 100% 농담으로 들리지 않는다. 영화 ‘암살’ 개봉을 닷새 앞둔 17일 오후 종로구 팔판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이 인물에 대해 “나보다 멋있는 캐릭터”라고 했다.

“최동훈 감독님한테 감사하죠. 이렇게 멋진 캐릭터로 저를 정의해 주셨으니. 감독님 전작에 나온 인물들이 매력이 있고 낭만이 있었어요. ‘하와이 피스톨’이라는 이름만으로도 뭔가 애기를 해주는 것 같고요. 최근 사회에서 영화를 처음 봤는데 촬영 때 예상했던 것보다 목직하고 감동적이었어요.”

‘암살’은 독립을 향한 신념과 열정을 지닌 저격수 안옥운(전 지현), 1930년대 시대상의 상징인 염석진(이정재), 현실을 넘어선 이상향과 같은 인물인 ‘하와이 피스톨’(하정우) 등 셋의 이야기를 주축으로 전개된다.

이 가운데 안옥운과 하와이 피스톨 사이에는 미묘한 감정선이 깔려 있다. 두 인물의 키스신도 있지만, 최 감독은 이들의 관계를 ‘로맨스’보다는 ‘서로 연민을 하는 사이’라고 설명한다.

“저도 연기할 때 이게 100% 사랑의 감정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감독님 말씀대로 동정과 연민 같은 것이었겠죠. ‘광대 뺨 키스신’은 사실 찍을 때마다 입맞춘 부분이 달랐어요. 이마에도 했다가, 볼에도 했다가. 그중에서 광대뺨 부분이 쓰였더라고요.”

‘암살’은 최동훈 감독의 전작들과는 다른 점이 많다. ‘범죄의 재구성’, ‘타짜’, ‘도둑들’은 사기꾼 또는 도둑의 세계를 매력적으로 그려낸 범죄물이지만, ‘암살’은 액션이 많기는 하더라도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진지하게 들려주는 정통 시대극이다.

안옥운과 염석진이 당시 시대상애 충실한 새로운 인물들이 라면, 낭만적이고 비밀을 감춘 듯한 인물인 하와이 피스톨은 감독의 전작 캐릭터들과 비슷한 구석이 많은, 최동훈의 캐릭터다운 인물이다.

“‘하와이 피스톨’은 영감(오달수 분)과 함께 무거운 분위기를 중화해주는 인물이라는 매력이 있고, 그게 제게 주어진 역할과 임무였죠. 저는 ‘암살’이 감독님의 전작들과 다르다는 데 관심이 더 갔어요. 배우로서, 후배 감독으로서 감독님의 영화를 향한 열정이나 고갈되지 않는 생각이 늘 궁금하고 닳고 싶었거든요. 감독님이 다섯 번째 작품으로 ‘암살’이라는 이야기



를 하시는데 제가 그 일원이 된다니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암살’ 촬영은 하정우가 연출과 주연을 모두 맡은 ‘허삼관’의 촬영이 끝나자마자 시작됐다. 배우로서 서로 다른 역할에 바로 몰입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허삼관’은 감독으로서 후반작업부터 개봉까지 신경 써야 했던 만큼 쉬운 작업은 아니었을 것이다.

“준비 기간이란 배우에게는 미리 캐릭터를 설정하는, 씨앗을 미리 심어놓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많이 부족했어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하고 일본어를 배우고 그랬죠. 돌이켜 보면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지요.”

힘들었다는 말이 무색하게 그는 바로 박찬욱 감독의 차기작 ‘아가씨’를 촬영 중이다. ‘허삼관’이 1월 개봉했고 ‘암살’이 이달 개봉하며 곧 ‘아가씨’로도 관객을 만나게 되는 셈이다.

작년 ‘군도-민란의 시대’가 개봉했고 2013년에도 첫 연출작인 ‘롤러코스터’에 ‘더 테러 라이브’, ‘베를린’이 개봉했으니 ‘다작’이라는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니다.

수년간 ‘총무로 섭외 1순위 배우’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하정우는 그동안 윤종빈, 나홍진, 김기덕, 류승완, 홍상수, 김용화 등에 이어 최동훈, 박찬욱까지 한국의 대표적 감독 다수와 호흡을 맞췄다.

“아직 이창동, 봉준호 감독님과는 못 했습니다. 당연히 불러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죠. 신인 감독이나 새로운 사람과도 함께 작업하고 싶고요. 배우가 삶을 활기해 가는 것은 당연히 작품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체력이 허락하는 한 계속할 겁니다.”

“정신과 치료 받으며 나를 돌아보겠다”

김수미 방송활동 중단 선언

KBS 2TV 예능 프로그램 ‘나를 돌아봐’ 제작발표회(사진)에서 가수 조영남과 설전을 벌인 배우 김수미가 해당 프로그램을 포함해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수미는 지난 17일 한 언론에 보낸 서한에서 악성 댓글로 힘들었으며 제작발표회에서 본인 자신의 행동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살아온 인생을 다시 돌아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나를 돌아봐’ 파일럿(시범제작)에 작으로 출연한 개그맨 장동민 대신 박명수와 호흡을 맞추는 데 대해 동향인 물의 출신지(전라북도 군산)를 문제 삼는 악성 댓글에 충격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서한에서 “인터넷에 ‘고향이 같다고 네가 박명수를 (프로그램에) 쏘았느냐’, ‘잘 해먹더라. 전라도 것들이’라는 글을 읽고 제 머리카락을 가위로 잘라내며 울었다”라면서 “그때부터 (저는) 정상이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제작진이 하자 철회를 위해 김수미를 설득 중이어서 실제 방송 활동 중단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오는 24일 첫 방송하는 ‘나를 돌아봐’는 ‘바라’ 하기로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신과 비슷한 성격의 다른 연예인의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스스로 돌아보는 ‘자아성찰’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연합뉴스



광주MBC ‘옴비의 오월통신’ 이달의 PD상 수상



이경찬 PD “5·18 참된 의미 되새기는 계기 되길”

광주MBC의 5·18 35주년 특집다큐집멘터리 ‘옴비의 오월통신’을 연출한 이경찬 PD(사진)·기획 김민호, 촬영 김환, 구성 조소영)가 한국PD연합회가 시상하는 제183회 이달의 PD상을 수상했다.

지난 5월18일 방송된 ‘옴비의 오월통신’은 옴비 토나(49)씨가 보고, 듣고, 만난 광주의 오월 이야기인 동시에 독립 현지 취재기다.

아시아태평양안민인권네트워크 동아시아 대표이자 광주의 대학교에서 인권을 강의하는 교수로서 바쁘게 살고 있는 옴비 토나 씨는 정치적인 이유로 지난 2002년 조국인 공교민주공화

국을 떠나 한국으로 망명을 왔다. 그는 특히 5·18정신이 콩고 민주공화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불씨라고 생각해 광주의 오월을 직접 만나고, 기록해서 콩고 사람들에게 들려주기로 결심했다. 이 프로그램은 현대사의 진실이 왜곡되고 있는 우리사회를 외국인의 눈으로 바라봄으로써 5·18의 의미를 되새겼다는 평가다.

이경찬 PD는 “공고는 아직도 군부독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라로 옴비 토나씨는 우리의 5·18을 투영해 볼 수 있는 훌륭한 거울이었다”며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이방인의 눈을 통해 더욱 또렷이 보고자 했으며, 5·18정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